

지스트, 2023 국제 레이저 여름학교 개최

- 레이저 기초부터 응용까지 강연과 실험 제공... 전 세계 10개국에서 참여해
- 2010년부터 매년 개최... 국내 유일 레이저 전문 연구소의 국제적 위상 강화



[사진1] 레이저·광기술 여름학교 참가자들이 단체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지스트(광주과학기술원, 총장 임기철) 고등광기술연구소(APRI, 소장 이영락)가 레이저와 광기술 분야를 연구하는 해외 학생과 연구원을 대상으로 '레이저·광기술 여름학교(SSOLLA*) 2023'을 개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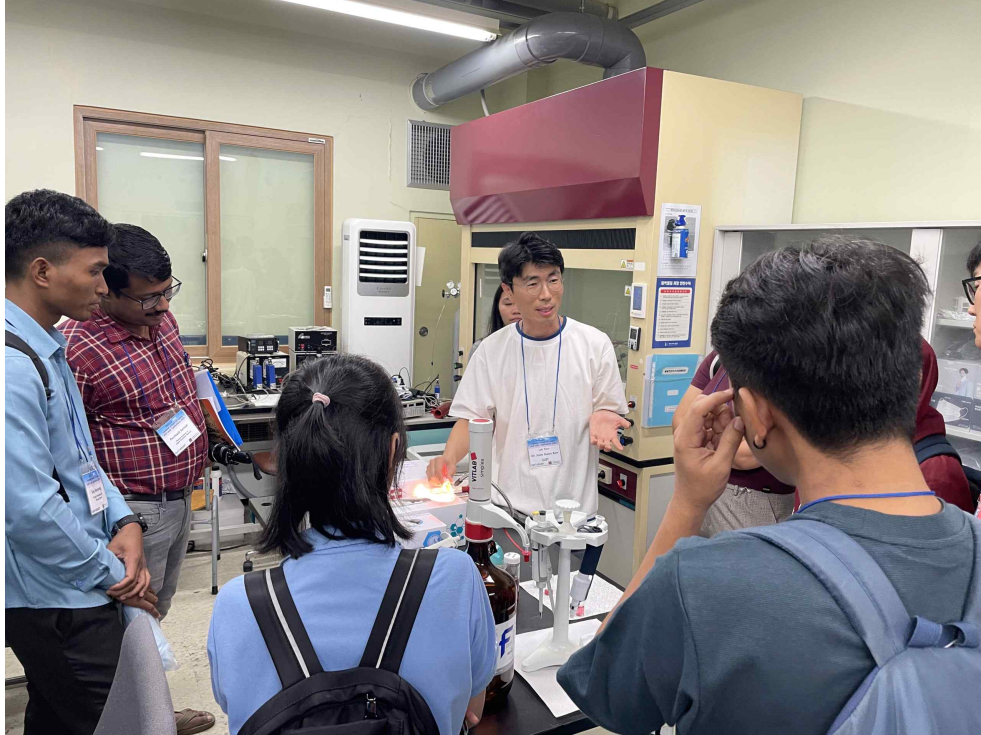
* SSOLLA(Summer School On Lasers and Laser Applications)

2010년부터 개최된 이 행사는 세계 각국에서 온 학생과 연구원이 합숙하면서 레이저의 기초부터 응용까지 강의를 수강하고 광학실험에 참여하는 국제 협력 프로그램이다.

코로나 정책 완화로 올해는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대면 행사로 진행됐으며, 싱가포르, 베트남,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체코, 리투아니아 등 전 세계 10개국에서 22명의 학생과 연구원이 참여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지스트 고등광기술연구소 이성구 박사와 의생명공학과 김재관 교수, 화학과 방윤수 교수를 비롯해 전남대학교 물리학과 이종욱 교수, 물리교육과 강영호 교수 등이 광학 및 레이저 분야의 강연과 실험을 진행했다.

강연은 ▲펨토초(1,000조분의 1초) 레이저 및 광섬유 레이저의 기초 및 응용, ▲비선형 광학, ▲나노 분광학, ▲바이오 메디컬 광학, ▲테라헤르츠 과학 및 레이저 안전 등에 관한 내용으로 이루어졌으며, 참가자들은 강의를 수강하고 광학실험실을 견학하며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사진2] 고등광기술연구소 김준헌 박사가 나노플라즈모닉스 실험실을 견학하는 참가자들에게 연구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영락 소장은 “고등광기술연구소는 2010년부터 매년 국제 레이저 여름학교 행사를 개최해서 해외 레이저 광학 분야 연구원들과 활발하게 연구를 교류하고 국내 광기술의 위상을 높이고 있다”며 “향후 광기술 분야 전반으로 국제 교류를 확대하여 세계 레이저 분야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올해로 개소 22주년을 맞은 국내 유일 광기술 전문 연구소인 고등광기술연구소는 세계 최초로 20펨토초(1펨토초: 1,000조분의 1초) 4.2페타와트(1페타와트: 1,000테라와트)의 초강력레이저를 개발한 바 있으며, 최근에는 레이저 및 광기술을 활용한 방산 기술 분야로 연구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